

## Graham Greene의 Style

黃 燦 鎬

Richard Hoggart는 그의 *The Force of Caricature*에서 Greene의 文體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있다.

“Greene’s Style is nervous, vivid, astringent, the vehicle of a restless and pungent imagination”<sup>1)</sup> 또 Evelyn Waugh는 “As I have said above, the style of writing is grim. It is not a specifically literary style at all. The words are functional, devoid of sensuous attraction, of ancestry and of independent life. Literary stylists regard language as intrinsically precious and its proper use as a worthy and pleasant task. A polyglot could read Mr. Greene, lay him aside, retain a sharp memory of all he said and yet, I think, entirely forget what tongue he was using. The words are simply mathematical signs for his thought. Moreover, no relation is established between writer and reader.”<sup>2)</sup>

라고 말하고 있다. Hoggart는 ‘nervous’하고 ‘astringent’하다고 했고 Waugh는 ‘rigid’하다고 했는데 이는 Greene이 英國散文的 傳統的인 美文調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심지어는 무시해버리고 機能을 優先으로 思想表現에만 중점을 두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정도를 벗어나 ‘mathematical signs for his thoughts’로까지 굳어진다. 솟제 英語가 아니라 통박까지 듣게 된다. 그런가하면 William Healy같은 이는 散文技法에 있어서는 目下 Greene을 따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찬양한다. 그러고보니 그 手法내지 技法의 卓越性이 바로 그의 文體의 缺陷을 이루고 있다는 逆說이 成立된다. 바로 그 逆說의 功過의 特性을 개략 살펴 보려는데 本稿의 目的이었다.

1) Richard Hoggart (1970). *The Force of Caricature*. Graham Gree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Samuel Hynes. Englewood Cliffs:Prentice-Hall p.83.

2) Evelyn Waugh (1948) *Felix Culpa?* Graham Gree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Samuel Hynes. Englewood Cliffs:Prentice-Hall p.97.

첫째로 注目해야 할 것은 그가 驅使한 allegory 내지 symbol들이다. 이 象徴이란 유독 Greene만의 技法도 또한 現代에 와서 考案된 것도 아니다. 藝術家들의——특히 그 中에서도 詩人の——想像力이란 知的인 觀念으로 집중했다가 그것을 具體的인 象徴에서 읽고 그 것을 表現하려고 한다. 그들은 自己의 記憶에서 象徴의 構成力에서 또 知覺經驗에서 그들이 表現하고 싶은 內容에 適切한 metaphor나 simile나 allegory 등을 찾아낸다. 꿈이나 聖書, 古典, 기타 다른 사람들의 作品에서의 引用도 바로 이러한 一聯의 作業범주에 속한다. Eliot의 「客觀的 相關物」도 그렇고 Yeats가 뭔가 不可思議한 要素를 表現할 수 있는 唯一한 手段을 詩的 象徴이라고 본 것도 모두 이것을 말한 것이다. 詩에서는 그 凝結作業이 散文보다 심하기 때문에 難解해지는 수가 많기 마련이지만 散文에서도 이것이 適切한 度를 넘거나 지나치게 主觀的일 때는 ambiguity를 낳고 Waugh가 말한 sensuous attraction이나 ancestry의 맛이 없어지고 말하자면 傳統的인 意味의 散文의 rhythm을 깨는 수가 많다. 또 symbolism이 어떤 構造를 이루고 나타날 때 과연 그 效果가 明確하게 讀者에게 傳達되느냐가 問題로 된다. 그 效果傳達이 不明確할 때는 결국 그 文學은 個人的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James Joyce의 試圖은 이런 意味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Greene의 symbolism의 內容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는 symbolism에서 흔히들 쓰는 animism과 metaphor도 쓰고있지만 압도적으로 쓰기 좋아하는 것이 simile다. 그의 어느 作品의 어느 페이지를 들쳐도 simile 한 두개는 반드시 눈에 띄게 마련이다. Greene의 simile에는 통속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입에 발려나오는 그런 것들은 거의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as brave as a lion이니 as cool as a cucumber니 as happy as a cat in a dairy등 널리 일반한테 定着되어있는 것은 쓰지 않는다. 自己 머리 속에 떠올라오는 어떤 image와 연결시킨다. concrete하고 actual하고 temporal한 것과 abstract하고 subjective하고 eternal한 것을 並列시키는데 그 concrete/abstract의 relationship이 두 方向으로 이루어진다. The Power and the Glory에서 예를 찾아보자.

- Evil ran like malaria in his veins.
- The old life peeled away like a label.
- Pride wavered in his voice, like a plant with shallow roots.
- The memory was like a hand, pulling away the past, exposing him.

○She carried her responsibilities carefully like crockery across the hot yard.  
 등과 같이 abstract한 것을 concrete한 것과 image association을 시키는가 하면 數는 이보다 적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It was like hate on a death-bed 「of a dog's snarl」.

○He drank the brandy down like damnation.

이런 simile들을 Greene이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썼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平凡하게 쓰기 싫어 그의 奇拔한 image와 associate시키는 버릇 다시 말해 다만 by rote로 썼겠느냐는 따질 것없이 이런 simile 들에 자주 부딪혔을 때에 讀者가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떤 概念을 直說的으로 表現하지 않고 또 하나의 概念 내지 事物과 연상을 시켜놓으면 補完作用에 의해 그 表現效果가 仰揚된다. 예를 들어 The old life peeled away like a label 같은 것은 거의 詩的效果까지 내고있다. Eliot의 April is a cruel month for breeding의 animism의 효과와 다를 것이 없다. Pride wavered in his voice, like a plant with shallow roots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이 like이하의 adverb phrase를 어떤 既成副詞로 代置한다면 그 효과는 대폭 달라질 것이다. 心理描寫같은 것을 할 때 形容詞를 쓰지 않고 action을 통해 讀者가 느끼도록하고 일체의 不必要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은 Hemingway의 hard-boiled style이 Greene의 手法과 相通하는 데가 있다는 것은 이미 指摘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Greene의 simile 愛用現象은 다름 아닌 그의 詩人氣質의 發露이고 그 밖에 지적되는 꿈의 도입이며 그 밖의 symbolism의 도입도 바로 이 詩人氣質의 發露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image association이 詩아닌 散文에 너무 빈번히 나타나고 또 그 意味내지 感情이 難解하거나 曖昧하거나 별 의미가 없을 때는 그 散文이 讀者의 투정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simile가 나타날 때마다 讀者는 일단 rhythm of reading을 순간적으로 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나마 그 symbolism의 analysis내지 decoding 作業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decoding내지 analysis를 讀者가 어느 정도까지 作家의 意圖에 맞게——다시 말해서 作家가 내려고 의도하는 분위기 내지 상징적 의미를 얼마나 正確히 잡느냐가 問題가 된다. 이 作業時에 讀者가 엉뚱한 image를 연상한다든가 부담 내지 저

향을 느낀다면 그 文章은 그 讀者에게는 하나의 staccato rhythm을 주게 된다. 그러면 Greene이 쓴 simile中에서 과연 이런 staccato rhythm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자.

Time was here in the cottage. Clocks ticked and hands went round as everywhere else in the world. He had a sense of time rushing past him, rushing like a Gadarene swine to destruction. Time squeaked at him as it passed at an increasing pace down a steep slope. (The Man Within.)

위의 例文에서 Time squeaked at him as it passed...의 animism도 다소 문제가 되겠지만 Time rushed like a Gadarene swine to destruction에 있어서는 pedantic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simile다. 시간의 빠른 흐름이 St. Luke의 나오는 파멸의 도야지들과 연상지어진다는 것은 독자에게 부담을 준다. The Man Within에서 例를 하나 더 골라보자.

The voice that came from the figure kneeling on the floor was startlingly unexpected. It consorted, not with the white or the gray hairs, but with the too-metallic yellow strands. It was soft, almost young, just avoided beauty. It was like a pretty sweet cake that had been soaked in port wine. It would have been lovely, if it had had the certainty of loveliness, but it was damped all through.

위의 the voice란 中年을 넘어선 청소부 아주머니의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가 포도주에 담가놓은 cake같다는 image association은 분명히 Greene 個人의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The Man Within은 그의 初期作品이어서 표현하나 하나를 show off하느라 무척 애쓴 흔적이 보이고 위의 두 例文에서 보듯이 pedantic하고 pompous한 것이 부담을 주고 거슬리지만 後期作品으로 옮겨가면서는 이런 pompous한 점은 많이 없어졌다. 그러나 그 흔적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The Heart of the Matter에서 그 例를 찾아보자.

His pallor showed how recently he had emerged from it into the port: so did his lack of interest in the school girls opposite. He was like the lagging finger of the barometer, still pointing to Fair long after its companion has moved to Stormy.

이는 비교적 짧은 것을 並列하는 Greene의 simile일반과는 달리 꽤 긴 것이지만 女子에 대한 無關心이 고장난 時雨計의 움직임이지 않는 바늘같다는 비유는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비유이긴 하지만 과연 讀者에게 直刻

전달될수 있는 直喩일까는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같은 The Heart of the Matter에서 例를 하나만 더 골라보자.

Round the corner, in front of the old cotton tree, where the earliest settlers had gathered their first day on the unfriendly shore, stood the law courts and police station, a great stone building like the grandiloquent boast of weak men.

法院과 警察署建物이 弱者의 虛勢처럼 서있었다는 直喩는 connotation이 그럴듯한 재미있는 것이고 그의 머리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image 구상이 적절하다는 증거로서 뒤에 가서 論할 그의 映畫的手法과 관련이 있는 Greene 特有한 才質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Greene이 즐겨 쓰는 simile는 그의 style에 功過兩面의 影響을 주고 있다.

다음에는 그의 文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In these moments of crisis he felt physically drawn in two—an agonizing stretch of the nerves. (The Man Within)

위의 글에서 an agonizing stretch of the nerves는 文法的으로 어떤 function을 하고 있을까. apposition이라면 무엇과 apposition이 되고 있을까. 그러나 讀者들은 文法이 어찌되었던 극히 빠르게 그의 묘사를 이해한다.

He was afraid when the villagers had arrived, the women to inspect the corpse and the men to look in vain for beer. (The Man Within)

이것도 위의 경우와 비슷한 것인데 the women과 the men이 villagers와 意味上으로는 분명히 同格이지만 文法上으로는 약간 문제가 된다. 이 文章은 comma보다는 semi colon이나 dash를 하고 the women came to inspect the corpse and the men to look in vain for beer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文章일 것이다. Greene의 특징은 이렇게 연속되는 개념 내지는 장면을 바로 던져 줌으로서 그 文章 tempo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logical sequence가 뚜렷이 나타나도록 번거로운 說明을 하지 않는다. 그럼으로 讀者로서는 따라가기 숨가쁜 때가 있다. 그 좋은 例가 Brighton Rock이다. 이것도 功過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알 수 없다.

다음 그의 文體의 특징이며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 바로 映畫手法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Hardy의 文章을 建築美가 있다고들 하는데 그 場面描寫가 讀者에게 주는 印象이 立體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Greene의 場面描寫는 camera를 갖다대고 찍어대는 映畫의 토막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 大部分의 作品이 映畫처럼 시작된다. 그래 읽고있노라면 그 토막토막들이 지극히 鮮明하게 눈앞에 展開되고 映畫는 story를 따라 進展된다. 우선 The Heart of the Matter의 시작을 보기로 하자.

Wilson sat on the balcony of the Bedford Hotel with his bald pink knees thrust against the ironwork. It was Sunday and the Cathedral bell clanged for matins. On the other side of Bond Street, in the windows of the High School, sat the young negresses in dark-blue jym smocks engaged on the interminable task of trying to wave their wirespring hair. Wilson stroked his very young moustache and dreamed, waiting for his gin-and-bitters.

Sitting there, facing Bond Street, he had his face turned to the sea.....

어느 日曜日 아침. Bedford Hotel balcony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다보고 있는 사나이, Wilson. 교회에서는 종소리가 울려오고 길 건너 高等學校 창가에서는 감동이 女學生들이 열심히 머리들을 빗고 있다. 實로 鮮명한 映畫의 한 場面이다. The Heart of the Matter 中 가장 強烈한 感動을 주는 장면이 있다. 죽어가는 어린애 옆에 꿇어앉아 "Father," he prayed, "give her peace. Take away my peace for ever, but give her peace"라고 기도를 올린다. 이 기도만큼 Scobie의 人間을 높여주는 것이 없다. 뒤 이어 나오는 場面을 보자.

He could see the breast of the child struggling for breath to repeat the heavy word; he came over to the bed and said, "Yes, dear. Don't speak. I'm here." The night-light cast the shadow of his clenched fist on the sheet and it caught the child's eye. An effort to laugh convulsed her, and he moved his hand away. "Sleep, dear," he said, "You are sleepy. Sleep." A memory that he had carefully buried returned and taking out his handkerchief he made the shadow of a rabbit's head fall on the pillow beside her. "There's your rabbit," he said, "to go to sleep with. It will stay until you sleep. Sleep". The sweat poured down his face and tasted in his mouth as salt as tears. "Sleep." He moved the rabbit's ears up and down, up and down. Then he heard Mrs. Bowles's voice, speaking low just behind him "Stop that," she said harshly, "the child's dead."

죽은 줄도 모르고 손수건으로 토끼를 만들어 그 그림자를 애 앞에 비치 주며 위로해주는 Scobie의 처절한 몸부림이 눈앞에 선하게 떠 올라온다. 감동적인 장면을 camera eye가 어느새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에게 전달

해준다. 이런 장면 구성자체가 映畵的인 것임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Greene의 entertainment의 하나인 This Gun for Hire의 한 文章이 바로 Greene이 즐겨쓰는 이 cinematic view의 手法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어 興味롭다.

“His eyes, like little concealed cameras, photographed the room instantaneously: the desk, the easy chair, the map on the wall, the door to the bedroom behind, the wide window above the bright cold christmas street.”

그의 말 그대로 Greene은 效果없는 지루한 說明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이 series of scenes로 強하고 鮮명한 映像을 통해 독자에게 어떤 emotion, idea, information을 전달한다. The Power and the Glory의 序頭는 camera eye가 잡은 다음과 같은 scene으로 始作된다.

Mr. Tench went out to look for his ether cylinder, into the blazing Mexican sun and the bleaching dust. A few vultures looked down from the roof with shabby indifference: he wasn't carrion yet. A faint feeling of rebellion stirred in Mr. Tench's heart, and he wrenched up a piece of the road with splintering finger nails and tossed it feebly towards them. One rose and flapped across the town: over the tiny plaza, over the bust of an ex-president, ex-general, ex-human being, over the two stalls which sold mineral water, towards the river and the sea. It wouldn't find anything there; the sharks looked after the carrion on that side. Mr. Tench went on across the plaza.

camera eye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Mexico의 吡약벌 아래 나타난 齒科 醫師 Mr. Tench를 잡는다. camera는 계속 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지붕위에는 vulture란 놈들이 두 서너마리 천연독스러운 표정으로 밑을 내려다보며 屍體를 찾고 있다. 저 놈들이 나 죽기를 기다리고 있겠지 싶은 생각이 들자 흠을 한 줌 쥐어서 그 놈들한테로 던진다—맥없이. 그 중 한 마리가 날아오른다. camera는 그 vulture를 따라간다. ex-president, ex-general, ex-human being의 bust들이 있는 廣場을 건너 바다 쪽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흘러들어가는 江에서는 상어란 놈이 屍身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camera는 다시 廣場을 건너가는 Mr. Tench를 비친다.

story가 얼마쯤 진행된 뒤 camera는 또 다시 Tench氏를 그의 office에서 잡는다.

He sat down in the rocking-chair and moved up and down, creating a faint breeze in the heavy air. A narrow column of ants moved across the room to the little patch on the floor where the stranger had spilt some brandy: they milled in it, then moved on in an orderly line to the apposite wall and disappeared. Down in the river the General Obregon whistled twice, he didn't know why.

흔들椅子上에 앉아서 흔들거리고 있는 Tench氏에서 twin camera의 또 하나의 눈은 흘린 brandy자국으로 개미떼가 줄을 서서 건너와서 그 속에서 뱅뱅 돌다가 다시 줄을 서서 방을 건너가 없어져버리는 장면을 잡는다.

멀리서 General Obregon號의 汽笛소리가 두 번 울려온다. 이 印象的인 scene. 우리는 散文을 읽고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映畵의 scene을 보고있는 것이다. 이렇게 鮮明한 scene을 보고있다보면 우리는 어느듯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위기 내지 감정에 말려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바로 Greene이 전하려고 意圖한 분위기 내지 감정이다. 그는 이 감정내지 분위기 도입을 symbolic하게한다. Tench氏 背景에 나타나는 vulture와 방안을 줄을 지어 횡단하는 개미 떼 壁에 나타났다 살아지는 도마뱀, 浴室에서 도망치는 쥐새끼, 발목이 묶인 七面鳥等. 이래서 The Power and the Glory와 The Heart of the Matter의 舞臺분위기는 유감없이 나타난다. Hemingway가 즐겨쓰는 눈(幸福)과 비(不幸), 그 밖의 symbol들도 Greene의 것에 비하면 그 效果가 너머도 單一하다. Greene은 스산한 분위기를 내기위해 vulture를 잘 등장시킨다. The Heart of the Matter에도 vulture가 나온다.

A vulture flapped and shifted on the iron and Wilson looked at Scobie. He looked without interest in obedience to a stranger's direction, and it seemed to him that no particular interest attached to the squat grey-haired man walking along Bond Street.

그러면 이번에는 The End of the Affair의 처음 두 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images들을 추려보자.

- that black wet January
- crowded hall full of stranegr's hats and coats
- the relics of other people's furniture
- the steps that had been blasted in 1944 and never repaired
- I realized I had the wrong umbrella.



○His eyes were blinded with the rain.

○The black leafless trees gave no protection; they stood around like broken water-pipes.

그러면 讀者는 이러한 images들에 빈번하게 접하고 어떤 氣分에 사로잡힐 것인가. 不過 2페이지를 읽었을 뿐이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孤獨하고 悲慘한 人生」「世上의 뭔가 시크므르한 냄새」「人間의 주저스러움」「潛在的인 憎惡」등이 결부되어있는 Bendrix의 世界속으로 밀려들게 마련이다. 이 처럼 그의 image making은 銳利하다. 그의 審美眼과 感覺이 얼마나 銳利한가는 다음 한 두가지 例만 보아도 足히 알 수 있다.

The silence was greater for the regular small tap, tap of feet and drip, drop of water. (The Man Within)

The only punctuation of the night was the sound of urination. (The Power and the Glory)

고요는 철저한 고요함보다는 「멀리서 개짖는 소리」「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토닥토닥하는 발자욱 소리」「오줌누는 소리」「닭우는 소리」 등으로 한결 더 듯보이기 마련이다. 우리는 Greene의 그 銳敏한 感性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Greene의 style의 특징을 보기위해 그가 즐겨쓰는 metaphor와 simile 그리고 이들이 주는 功過의 效果. 다음에는 그의 文法. tempo를 빠르게 하기 위한, 말하자면 詩人的인 imagination의 비약과 여기에 따르는 그의 獨特한 punctuation과 개념의 並列. 그리고 그의 映畫的手法, 다시 말해서 그의 camera eye가 잡는 그 鮮明하고 강력한 場面の 連續. 또 그 scene에 나타나는 symbolism등을 簡單하게 檢討해 보았다. 위의 列擧한 이런 特徵들은 바로 Greene의 缺點인 同時에 長點이 되고 있다. Waugh가 指摘했듯이 Greene이 傳統的인 英國의 美文調의 散文의 rhythm을 손상시킨 過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보아온 몇 가지 觀點에서 Greene은 story-teller로서 뿐만이 아니라 簡潔하고 感覺的인 散文의 구사가로 오히려 칭송을 받아 마땅하리라고 본다.

## BIBLIOGRAPHY

Richard Hoggart (1970). The Force of Caricature. Graham Greene: A



-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Samuel Hyne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Evlyn Waugh (1948). *Felix Culpa?* Graham Gree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Samuel Hynes. Englewood Cliffs:Prentice-Hall.
- Francis L. Kunkel (1959). *The Labyrinthine Ways of Graham Greene*. Sheed & Ward, New York.
- John Atkins (1957). *Graham Greene*. John Calder, London
- Philip Stratford (1964). *Faith and Fic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London
- Dominick P. Consolo (1967). *Graham Greene:Style and Stylistics in Five Novels*. *Graham Greene:Some Critical Consideration*. ed. Robert O. Evans.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Lexington
- Kenneth Allot & Miriam Farris (1963). *The Art of Graham Greene*. Russell & Russell. New York
- Peter Wolfe (1973). *Graham Greene, the Entertainer*.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